

Market Index / 9일

코스피지수 ▲ 5298.04 +208.90	코스닥지수 ▲ 1127.55 +46.78	유가(WTI, 달러) ▲ 63.55 +0.26	환율(원) 1USD 100원 1486.05 949.37	찰때 1434.95 916.73	찰때 1EUR 1CNY 1765.42 221.43	찰때 1696.54 200.35
-------------------------	------------------------	---------------------------	--------------------------------	-------------------	-----------------------------	-------------------

“설 대목 제주 만감류 소비를 늘려라”

도, 소비 촉진·가격 안정화 중점 종합 대책 추진
정부 정책 연계 소득 안정·소비자 만족 제고 주력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맞아 2025년산 만감류 소비 촉진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관 기관 협력으로 시장 가격을 안정화하고 제주 만감류 소비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 품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대상에 감귤이 포함되면서 오는 16 일까지 대형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20~30% 할인된 가격에 만감류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설 명절에 맞

춰 정부 지원 실속형 과일 선물 세트(6만9000세트/3kg) 공급을 확대 한다.

특히 제주도는 만감류 출하가 본격화되고 설 소비 수요가 맞물리는 시기를 맞아 홍보·판촉 역량을 집중해 공격적인 소비 촉진 활동을 벌이고 있다.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소비 홍보와 소비 쿠폰 발행 사업을 확대했고 고향사랑기 부제 담례품에 만감류 구성 물량(1만 세트)을 늘렸다.

시장 공급량 조절을 위한 수급 안정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매취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농협에 18억원 규모의 수급 안정 사업비를 지원했다. 행정사는 설 명절 직거래 판촉 행사, ‘서귀포in정’ 온라인 특별 기획전, 자매도시 교류 판매 등 온·오프라인 소비 촉진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고품질 만감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설 명절 특별 유통 관리 대책도 마련했다. (사)만감류연합회와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당도 기준 미달 등 상품 외 만감류의 유통을 차단하

며 제주 만감류의 품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사)제주감귤연합회와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브랜드 홍보 강화, 전국 하나로마트 할인 행사 등도 진행 중이다.

제주도에서는 소비 촉진·유통 안정 대책의 영향으로 2월 들어 만감류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정부 정책과 연계한 할인 지원과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설 이후까지 안정적인 유통 여건을 유지해 농가 소득과 소비자 만족도를 함께 높이겠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소진공, 9일부터 신청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의 신청을 9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지난해 연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25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kr’에서 하면 된다.

소진공은 지원사업을 사칭한 피싱 사이트와 문자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반드시 공식 누리집을 통해서만 신청해야 하며,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신속한 집행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형마트 설 선물코너 설명절을 앞두고 제주에서 다양한 제품이 쌓여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농협, 오는 12~13일 설 맞이 직거래장터

농·축산물 과일·떡국떡 등 판매

농협 제주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2~13일 이를간 본부 주차장에서 설맞이 직거래장터를 연다.

이번 장터는 할인판매 행사를 넘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의 장으로 마련됐다. 장터에선 제주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비롯해 과일, 떡국떡, 수제 굽잼, 기름떡 등 다양한 제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도 참여해 된장, 고추장 등 장류를 선보인다.

제주농협은 그동안 설·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비롯해 햇마늘·양파 직거래장터, 주차장 완공기념 등

다양한 직거래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왔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의 농축산물을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쌓고 있다.

제주농협 이춘협 본부장은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는 자리

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제주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제주농협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eojoh@ihalla.com

“향후 5년 신산업 안착·생태계 확산해야”

어제 제주 경제 발전 위한 도민 토론회 열려

제주도와 제주상공회의소는 9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제주 경제 발전을 위한 도민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유영봉 제주연구원장은 ‘제주 경제의 현황 진단과 향후 5년 발전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유 원장은 “제주는 지난 5년간 코로나를 가장 빠르게 극복하고 우주·에너지·디지털 농업·물류 등 신산업 분야의 기반을 마련하며 산업 고도화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며 “앞으로 5년은 이들 신산업을 안착시키고 생태계를 확산하는 시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발제에 이어 경제토크쇼가 진행됐다. 이 자리엔 농업, 관광, 우주

산업, 에너지 등 4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기후 변화 대응 작부 체계 전환과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데이터 기반 과학농정 실현을 제안했다. 서원석 한국관광학회 회장은 ‘더 많이 오는 관광’에서 ‘더 오래 머무는 관광’으로, ‘보는 제주’에서 도민의 삶과 공간을 공유하는 ‘살아보는 제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 개발부터 제조, 활용까지 전체 벤류체인을 갖춘 우주 산업 독립 생태계 구축과 농업·관광·에너지와의 융복합을 제시했다.

진선희기자

설 앞둔 제주 중소기업 자금난 여전

도내 중소기업 47곳 대상 ‘설 자금 수요조사’

70.2% “자금사정 곤란”… 필요자금의 40% ‘부족’

설 명절을 앞두고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업의 10곳 중 7곳이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으며, 필요자금 대비 부족률은 40.2%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절반 이상은 설 상여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가 지난 1월 19~29일 도내 중소기업 4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0.2%가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지난해 설 대비 0.7%포인트(p) 감소했지만 70%를 유지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자금 사정이 곤란한 원인으로는 ‘판매부진’(78.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전년과 비교하면 15.2%p 상승한 수치다. 이어 ‘판매대금 회수지연’(30.3%), ‘원부자재 가격 상승’(27.3%) 순으로 비중이 커졌다.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차입 상황의 경우 ‘곤란 및 매우 곤란’ 하

다는 응답이 59.6%에 달한 반면 ‘원활’이라는 응답은 4.2%에 그쳤다. 자금 조달이 곤란한 주요 원인으로는 ‘대출한도 부족’(58.1%), ‘높은 대출금리’(41.9%)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올해 설을 보내기 위해 업체당 평균 2억335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 중 부족한 자금은 9370만원으로, 필요자금 대비 40.2%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 자금 확보 방안으로 ‘금융기관 차입’(46.2%), ‘납품대금 조기 회수’(35.9%) 등이 제시됐으나, ‘대출이 없다’고 응답한 업체도 48.7%에 달했다.

올해 설 상여금(현금)을 작년과 동일 수준 및 축소해서라도 ‘지급 예정’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55.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62.2%)와 비교하면 6.9%p 감소한 수치다. ‘지급한 적 없음’ 및 ‘경영 곤란으로 미지급’이 각각 17%·10.6%로 나타났고, ‘미결정’인 업체도 17.1%였다.

오은지기자 eojoh@ihalla.com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감귤보급품종(1~3년생)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파라베니와세
- 금귤 ● 하귤(아마나스) 외



※ 국내육성품종(1~3년생)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원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봉
- 미니몬 ● 제라몬

※ 포트묘목 생존률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 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원터프린스 / 하귤 / 오파라베니 / 레몬 외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제주도정소식

제주가치돌봄 ‘돌봄이 필요할 때’ 1577-9110
○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도청 누리집
※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활용행사
행사 기간 중 해당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시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내에서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행사기간 2026. 2. 10.(화)~2.14.(토)

○ 참여대상: 동문재래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서귀포마을레저시장, 서귀포도오일시장, 서문공설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화보증현시장
○ 환급안내:
* 34,000원~ 67,000원 미만 구매시 온누리상품권 1만원
* 67,000원 이상 구매시 온누리상품권 2만원
※ 행사기간 내 5일 기준 구매수증 환급 가능
* 제외대상: ①본인확인 수단(휴대전화) 미지참시, ②국산신선 농축산물이 아닌 ③행사 마트를 점포 구매 영수증, ④재발행 영수증, ⑤이영수증 환급, ⑥행사 기간내 구매가 아닌 영수증, ⑦구매 고객이 아닌 대리인
○ 문의처: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022, 농축산물
행사 운영 고객센터 02-6956-2254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모집
○ 사업명: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모집
○ 신청기간: 2026. 2. 3. ~ 2026. 5. 8. ※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대상: 2026년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39세 청년
(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재산) 무주택자
○ 주요내용: 이사비 및 입주청소비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문의처: 주택도지과 0710-4252
○ 신청방법: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2026 탐라청년출발페스티벌
○ 신청기간: 2026. 2. 23.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19~39세 청년(2026. 1. 1. 이후 제주 전입자)

※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도정소식 고시·공고)